## ▪ 교회소식 ▪

1. **환경세미나 :** 환경부가 주관하는 세미나 <환경 토크쇼 : 청파 환경 이야기>가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선교회장단 모임 :** 오늘 2부 예배 직후 세미나실에서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3. **선교회 총회 :** 다음 주일 오후에 모이는 선교회는 총회로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는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신년도 임원을 선출해 사무실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활동보고 :** 각 부서와 기관은 2017년 한 해 살림을 정리해 사무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 회의 :** 오늘 12:30 사무실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6. **기부금 영수증 :** 2017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7. **결혼 :** 곽새롬 씨와 황인규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8일(토) 낮 12:30 AW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최미경 씨와 염정훈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8일 오후 2시 보령 명문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이번 주 16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떡대접 : 김용규 송명

| | |
|---|---|
| **다음 주 설교 본문** | 요나 1:4-10 |

| |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다음 주** | **1부** | 김기석 | 공동기도 | 인도자 |
| **예배위원** | **2부** | 김기석 | 윤성종 | 김명하 |

| | | | | |
|---|---|---|---|---|
| | **1부 영접위원** | 최재욱 | **헌금위원** | 이수정 |
| **11월** | **2부 영접위원** | 하현철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김경혜 | | |
| | **2부 헌금위원** | 김정민 진정숙 | | |

| | | | |
|---|---|---|---|
| **오늘 식당 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임영선 서이순 원은이 김광일 이성범 | | |
| **다음주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조우석 이민범 한성건 | | |
|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
| **커피 판매 봉사** | 5여선교회 | **다음 주 주차봉사** | 이순용 |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1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뿌연 황사 하늘로 변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지구의 한쪽은 땅이 죽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사람과 하늘과 땅, 뭇 생명이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속 드러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적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가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교 독 문 ····· 19. 시편 32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조항범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93. 오 신실하신 주 ····· 다 함께

▲ 성경봉독 ····· 눅 11:37-44 ····· I. 인도자
II. 이유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주 이름 찬양하라 ····· 마중물찬양대
II. 나의 죄를 씻기는 청파 찬양대

##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정 김광일 이부용 김기석 김희우
김명하 오영일 김성순 김성우 박유경 김시영 김영순 김영호 김용길 최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정린 김정미 김종철 고영애 김지윤 정영우
김태은 김태현 김혜영a노성희 김만균 마재국 손의나 박기영 박미연 박상욱
임서영 박석원 양선용 박숙미 백묘현 서수진 서해나 서효진 심상숙 심해성
안길상 이형숙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엄소현 왕수명 유경주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이동천 이미휘 이부곤 이영하 이완구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증자 이현주 이현죽 이고임 임 영 정경례 임찬양 전영린
김행자 전은택 정연희 정원석 김현영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문규 진정숙
주은경 최 숙 최영민 최옥분 최옥자 최은미 최철수 곽권희 최 현 하현철
최성애 한상경 한상수 남해린 한훈식 홍남옥 홍복선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구명자 김나름 김시영 김태정 박숙영 은종인 이광재 이윤범 나지선 임은영
최미선 최영민 최옥자 한훈식 권채영 무명7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성순 김향자 이고임 정구봉 황경순 무명6

## ▪ 집 회 안 내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일 집회 |
|---|---|
| 환경 세미나 |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br>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 예배 | 시간 | 장소 | 예배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대예배실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성서학당 | 13:30 | 대예배실 |
| 중고등부 | 10:4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1:0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 마음으로 읽는 글 ▪

### 때로는 강도 아프다

- 김구식

조금만 아파도 강을 찾았었다
늘 거기 있어 편안한 강에
팔매질하며 던져버린 게 많았지만
그 바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저 강이니까 걸러내고
그저 물이니까 제 길 가는 줄 알았다/
해질녘 붉은 상처도
강은 깊이 끌어안고 있었고
나는 긴 그림자만 떠안겨 주었다
피울음을 토하기 시작했을 때도
강은 같이 흘러주지 않는 것들을
꼬옥 감싸고 있었다/
등 떠밀려 굽은 갈대의 손짓
바다 어귀까지 따라온 붕어의 도약
아파도 같이 흐르면
삶은 뒤섞여서도 아름다우리라고
불현듯 내 가슴에도
푸른 강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이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없네
영원토록 나의 찬양은 내 주 예수 피밖에 없네
오직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 씻기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씻기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니
내 주님 앞에 나 감사해

말 씀 …… **호랑이 굴 속에서**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420. 너 성결키 위해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겉모습보다 내면을 깨끗하게 가꾸며 사십시오. 부질없는 것들에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욕심에 이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 쌓아둔 책

다른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책이 생기면 일단 책장에 꽂기 전에 책상 위에 놓아둔다.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은 책들만이 책장에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책장에 들어가기 전 책이 놓일 자리는 책상 위다.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놓아둔 책 위에 책이 놓이고, 그 책들 위에 다른 책이 놓인다. 책 위에 책이 쌓인다. 지내다 보면 책상만이 아니라 방에도 쌓인다. 책들은 탑처럼 되고, 탑이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워지면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읽은 책을 꽂아야 하는 책장에, 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 둘 책들을 선별한다. 규칙 위반에 따른 불편함이 없을 수 없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마음속에서 합리화하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단 넣어 두는 거야, 일단. 공간이 없으니까. 봐, 공간이 없잖아. 안 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곧 꺼내서 읽을 거야.'

물론 공간이 없다는 건 맞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곧 읽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읽어야 할 책이 계속 생기니까.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책들과 누군가로부터 보내져 온 책들이 쌓이고, 그걸 읽을 시간은 대개 따로 생기지 않는다. …

한번 책장에 들어간 책을 다시 읽기 위해 꺼내는 일은, 어떤 계기에 의해 필요해지는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간해서는 드물다. …

그런데 쌓인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흐뭇한 기분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 기분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일까? … 쌓여 있는 책들을 보며 책 주인이 느끼는 그 흐뭇한 기분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느껴야 하는) 독자로서의 기분을 모방하거나, 미리 앞당겨서 즐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기분을 쌓인 것을 보면서 느낀다는 뜻인데, 쌓아 놓은 것을 보면서 읽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읽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무의식적 교활함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쌓아 둔 채로 한자리에 오래 있어서 자주 눈에 들어온 책들은 말할 수 없이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 책 주인의 마음속에 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묘한 친밀감을 형성한다.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 같아진다. 심지어 읽은 어떤 책보다 더 읽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일도 생긴다. 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읽은 것이나 다름없는 친밀함을 느끼다 보니,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까지 다 아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익숙함이 만들어 낸 오해다. …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자주 만나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와 상관없이 그 삶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이 저절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더 알려고 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된다. 심지어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자주 보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를, 자주 보고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함부로 대한다. 가짜 친밀함과 오해가 만들어 낸 부작용이다. 접촉의 횟수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책보다 더 읽기 어려운 책이다. 책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을 읽기 위해서다. 사람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읽으려고 책을 읽는 것이다.

우리는 혹시, 읽지 않은 책을 책장에 집어넣을 때 그런 것처럼 자책감 없이 누군가를 제쳐 두기 위해 이런 식의 설명하기 힘든 익숙함과 오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참으로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접촉이 잦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